

사전편찬의 '大長征' 주도한 20년

세계최대 「中國語辭典」 펴내는 高大 민족문화연구소 洪一植 소장

세계 최대규모의 「中國語辭典」이 국내에서 편찬돼 곧 출간을 앞두고 있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소장 洪一植)가 北京大 등 중국 현지 학자들과의 공동작업으로 펴내는 이 「중국어사전」은, 현존하는 최대의 사전인 일본의 「中日大辭典」보다 16만어가 더 많은 30만어가 수록될 예정이어서 사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편찬 및 발간의 실무공정이 거의 완료돼 3월중에 우선 小辭典(6만어)과 中辭典(18만어)을, 잇따라 올안에 30만어의 大辭典을 출간하게 되는데, 이로써 1971년 이후 근 20년에 걸친 「중국어사전」 편찬의 '大長征'이 성공적으로 마감되는 것이다.

'적성국' 중국의 사전을 만드는 어려움

이 대장정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도하고 광장한 이가 바로 민족문화연구소장 洪一植 교수(52·국문학). 이만한 규모의 사전편찬이 결코 한 개인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홍교수의 정열과 추진력이 없었더라면 「중국어사전」의 발간이 훨씬 더디졌거나 혹은 아예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이다. 홍교수 스스로도 이 사전의 발간에 기울인 자신의 노고를 굳이 감추려고 하지는 않는다.

“故 朴晨義 교수께서 소장직을 맡아하시던 1971년에 사전편찬이 처음 발의된 이래, 그 간 연구소의 총간사로서 혹은 소장으로서 제가 이 작업에 기울인 애정은 각별한 것이었습니다. 주위의 이해부족과 어려움도 많았지만, 뭐랄까 민족사의 훗날을 예비하는 대학의 지

성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일종의 사명감으로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홍교수가 간단하게 표현한 '주위의 이해부족과 어려움'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었다. 80년대 초반과 70년대를 통틀어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경직된 냉전이데올로기 때문에 '적성국' 중국의 사전을 만든다는 작업 자체가 이미 주위의 협조나 지원을 구하기가 곤란한 일이었다. 중국어문학 전공인력의 부족과 자료수집의 어려움도 심각했고, 막대한 규모의 재원확보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 중 최근까지도 홍교수와 편찬팀을 괴롭힌 문제가 자료수집 및 재원확보의 어려움이다.

“중국과의 공식국교가 없다는 점에서 자료수집의 난관이 컸습니다. 가령, 대만의 중앙연구원과 국립편역원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입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홍콩을 통해 구입한 중국현지의 각종 사전들은 우리 세관에서 통과가 안돼요. 정작 필요한 것들은 그것인데 안기부에서 압류처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원한 편법이 안기부와의 절충을 통해 압류는 하되 그것을 다시 빌려보는 것. “지금 우리 연구소에 있는 대부분의 중국자료들이 다 우리 돈 내고 사와선 안기부에 '맡겨 놓고' 빌려쓰고 있는 것들”이라고 홍교수는 말한다.

「민속문화대관」 판매수익금으로 재원 삼아

사전편찬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聖人도 時俗을 따른다”는 홍교수의 '偽計'가 큰 몫을 해냈다. 사전편찬작업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민족사의 훗날을 예비한다”는 사명감으로 「중국어사전」 편찬작업을 이끌어왔고 말하는 홍일식교수.

입안에서 마무리까지의 20년간을 「중국어사전」에 매달려온 홍교수는 특유의 정열과 추진력으로 온갖 꾀은 일을 도맡아 왔다. 직접 北京을 왕래하며 중국 현지 학자들의 참여를 교섭하는 등 그의 남다른 '극성'이 있었기에 세계최대의 「중국어사전」이 비로소 빛을 보게 됐다.

70년대 후반 수차례의 기금지원 요청이 당시 문공부장관이던 김성진씨의 '不可'결정으로 벽에 막히게 되자, 홍교수는朴正권 말기에 급속스레 증대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이용하자는 데 착안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먼저 착수한 작업이 「民俗文化大觀」 발간이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선 문공부에서 두 말 않고 기금지원을 해 주었죠. 그리고 그 자체로도 우리 연구소가 자랑할 만한 업적으로 평가됩니다만, 애초의 제 생각은 「민속문화대관」을 팔아서 남는 돈으로 「중국어사전」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홍교수의 이 전략은, 사전편찬의 초창기 재원의 거의 절반을 이 「민속문화대관」 판매수익금으로 충당했을 만큼 적중했다.

어쨌든 이런 곡절들을 거쳐 사전편찬의 기초작업이 대략 마무리된 것이 1979년경. 1971년의 첫 구상 이후 기초자료 수집(72~75)과 자료의 분류·정리(76~78)를 끝내고, 이 해 전국의 중국어학자와 관련단체를 불러 사전 편찬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기초작업에만 8년이 소요된 셈이다.

이어 1980년 분량은 작지만 사전의 형태를 갖춘 試案本으로 다시 공청회를 갖고 내용과 체제의 골격을 마련한 다음, 1981년부터 8년간 본격적인 집필과 수정에 들어가 이번엔 大尾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 과정에서 「중국어사전」은 '세계최대'에 걸맞는 갖가지 기록들을 남기기도 하는데, 가령 2·5톤 두 트럭분

시드니 셀던



시간의 모래밭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혁명가들과 담 밖으로 밀려난 수녀들의 상상을 뒤엎는 대 로맨스……

● 신국판/486면/값 4,500원 공경희 옮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美 최신헌제작
「뉴욕타임즈」 연속 1위

독점출판
韓國語版 저작권 本社所有

로버트 폴감/서울어대 박종서譯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값 3,000원

유치원 입학식에서
낭독되었다가, 감명받은 한 성인
의원이 국회에서 낭독하였고,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아메리카 걸스카웃 및
각종 신문·CBS의 전파를 타고 방송
수백만의 청취자들을 열광시켰던
보통 사람의 보통이 넘는
감동적인 이야기.

김영사
745-4823(대표)
FAX. 745-4826

의 자료카드라든가 중국식 簡體 활자 1만5천 여자의 주조 등이 그것들이다. 참여인원도 연 35만명으로 특히 국내의 소장 중국어학자들은 거의 모두 사전편찬팀을 거쳐 간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카드만 2·5톤 두 트럭분

한편, 원고집필이 거의 끝나가던 1986년 5월에 홍교수가 직접 원고를 들고 北京으로 날아가 현지 학자들의 교열을 받았는데, 이때의 뒷얘기가 또한 흥미롭다. 중국 입국부터가 사전편찬의 책임을 맡은 민족문화연구소장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당시 북경에서 개최된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한국배드민턴 선수단을 인솔하는 '체육부 자문위원'의 감투를 빌려 쓰고서야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작 홍교수를 난처하게 만든 것은, 개인적으로는 그 뜻을 환영하는 현지 학자들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어사전」의 교열과 감수를 선택 말아주려 하지 않은 점이었다. 北京大學의 제의인즉슨, 교열 및 감수를 맡더라도 미국 하와이대의 한국연구소(소장 서대숙)를 고리로 삼는 삼각관계 속에서, 그것도 對外秘로 하자는 것이었다고. "정치적인 문제는 역시 정치적으로 풀어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홍교수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들고 나온 무기가 '八路軍'이었다.

"귀국하기 사흘전엔가 마련된 만찬석상에서 '八路軍'을 예로 들어 당 간부들에게 따져 물었죠. 좋다, 당신네들이 안해준다면 천상대만에 부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당신네들이 '위대한 인민해방군의 전신'이라고

풀이할 팔로군이 '共產匪賊'이 되고 만다, 그래도 좋은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아연 우호적으로 급변, 외교부와 교육부를 통한 당 차원의 적극협조를 약속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홍교수의 말이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北京大學와 北京外國語大學, 延邊大學 등의 학자들을 교열작업에 동원시킬 수 있었고, 여기서 정리된 원고를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試刷, 북경으로 탁송하여 최종 감수를 받고 있다. 현재는 마지막 교정쇄가 북경에 가 있는 상태라고 전하는데, 이 과정에서 李貴培(북경대), 趙福順(북경외국어대) 두 중국인 교수가 1986년 서울에 와 지금까지 국내에서 감수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학자로서의 개인적 관심은 '문화영토론'

1964년 연구원으로 처음 발을 들여놓은 이래 26년간 민족문화연구소의 터줏대감으로 일해온 홍교수는 연구소의 책임자로서 「중국어사전」 완간에 온 정열을 쏟는 일 이외에도, 이른바 '文化領土論'에 대한 학자로서의 개인적 야심도 크다. 원래 개화기문학을 전공하여 「한국개화기의 문학사상연구」 「六堂研究」 등의 역저를 펴낸 바 있지만, 최근에는 문명비평가, 혹은 문화사가로서의 지향을 특유의 문화영토론 속에 농축시키고 있다.

공사간에 다망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워 할 홍교수는, 지난해에 상재한 「文化領土時代의 民族文化」를 통해 그 일단을 펴보인 문화영토론의 구체적인 各論을 세우 체계를 정밀히 하는 일에 벌써부터 마음이 바쁘다.

—강철주 기자

세미나

도서유통의 합리화 이룩한 프랑스의 아세트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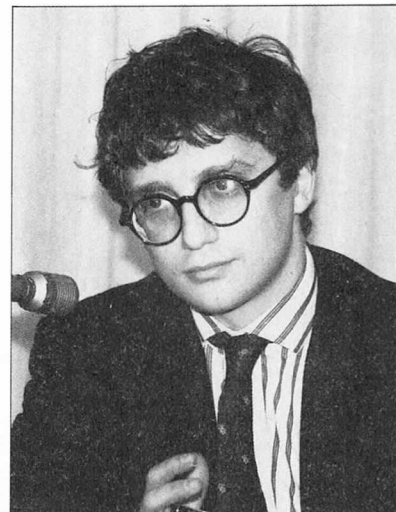
佛출판인 피에르 율모씨 강연

프랑스에는 6천여개의 출판사와 2만8천여개의 서점이 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출판사와 서점들이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도서유통체제를 확립하려는 프랑스인들의 노력은, 출판사이자 도서유통업체인 아세트社의 과학적인 운영시스템을 통해 그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다.

아세트社는 미국의 백과사전 전문출판사인 그롤리어社, 스페인의 살바트社 및 프랑스의 J.C. 라테社를 인수한 후 부상한 세계 3위의 출판사로, 현재 프랑스 도서유통시장의 28% 점유하며 한해 동안 무려 1억2천만 부에 이르는 도서를 취급하고 있는 굴지의 유통업체이기도 하다.

지난 2월1일 출판협회강당에서 "프랑스 출판계 현황 및 서적도매상으로서의 아세트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가진 '장클로드 라테' 출판사(아세트 계열사) 대표 피에르 A. 율모씨에 따르면, 아세트사는 서적의 제작, 출판 및 유통의 전 체인을 관장하고 있는 프랑스 출판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다. 한해의 매출액이 60억 5천만 프랑에 이르며, 고용인만도 1만6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재고도서의 소화능력도 2만7천종 6천만부나 되며 전세계 120개국에 연간 1천 2백여부를 수출하고 있다.

아세트 판매전략의 특징은 소매판매망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으로, 철저한 고객관리를 바탕으로 판매원이 고객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주문을 받는 3단계 판매접근방식을 활성화하고 있다. 아



지난 2월 1일 출협강당에서 강연회를 가진 라테출판사 대표 율모씨

세트의 중앙유통센터라 할 수 있는 모르파스는 파리로부터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도서의 입고에서부터 해당 주문처로의 발송은 물론 반품도서처리까지의 전과정이 전산화 시스템에 의해 자동처리된다. 출간된 서적은 최소한 3일 이내에 전국 8천여 거러서점에 배포가 가능하다.

율모씨는 이날 강연에서 아세트의 서적배부시스템 및 재고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아세트를 그대로 모방하기보다는 응용하여 한국에 적합한 시스템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특히 강조했다.

도서출판 진선

702-2921, 717-2131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사색하는 사랑을 위하여!

詩人 칼릴 지브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심오한 명상의 세계를 열어주는 살아있는 언어의 철학자.
지브란과의 사랑을 통해 영혼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메리 해스켈.
지적인 두 연인의 대화는 우리에게 인생의 진리를 전해준다.

점은하 역음 값 2,000원



천재들의 학창시절

천재들의 생생한 학창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새로운 스타일의 위인전기!

세계의 역사를 이끌었던 여러 천재들이 있다.
아인슈타인, 처어칠, 퀴리부인, 슈베르트.....
그들의 학창시절은 어떠했을까?
공부만 잘하는 우등생이었을까?
천재들의 생생한 학창시절로 함께 떠나보자.

게르하르트 프라우제·이인성 역 값 2,700원

늘·개·어·있·는·젊·은·목·소·리·로